

## 중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문제점 분석

옥 일 남

(영등포고등학교 교사)

---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와 운영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하여 사회과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일부 단원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 반구조적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교사 34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사회과 교사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 간에는 차이가 나고 있었다.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을 현행의 사회 교과서를 이용하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셋째, 대다수 사회과 교사들은 현재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학생들 대다수는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 수업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수준별 수업이 사회과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먼저, 수준별 집단 평가와 수준별 수업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다르게 수업하는 것이 어려웠다. 둘째, 수준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과 학습 보조 자료나 사회 교과서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 셋째, 교사들은 수준별로 집단을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준별 수업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은 사회과 교실 같은 공간의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요어 : 수준별 교육과정, 사회과 교사의 인식, 능력별 수업, 희망과 적성에 따른 수업

---

## I. 문제제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국가 정책적 과제인 ‘수준별 수업’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에는 수준별 수업, 자기 주도적 학습, 구성주의적 학습 원리, 수행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연결 고리를 지니면서 맞물려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미군정기를 지나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 가장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교육적 개혁을 시도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경우는 바로 제 7차 교육과정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수요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입장과 배려’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원리가 도입되어 국가 정책적으로 ‘수준별 수업’이라는 형태를 제시하게 되었다. 학습 수요자의 능력이나 적성, 취미, 흥미를 반영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형태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 대한 김왕근(2003, pp. 3~4)의 견해에 의하면, 중앙 수준에서 교실 수준으로 하향되는 권력의 이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는 해체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또한 이론이나 정책 수준에서 개별화 학습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처방이 교실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내려질 경우, 교사는 많은 실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제적 지식을 응용하여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설계 속에서 위로부터의 교육 개혁이 시도되었으며,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 구현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준비와 유행적인 구호 속에서 등장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그 실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중·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과 수업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사회과와 수준별 수업

###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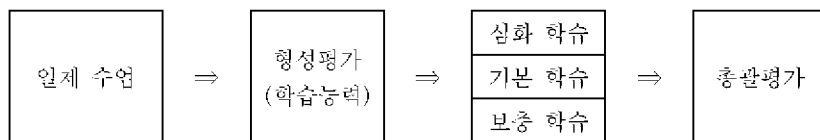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는 3가지로 파악

되고 있다. 단계형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과목선택형 교육과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을 공통적으로 학습하고, 형성평가 등을 통해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새로이 편성할 것을 권한다.

이와 같은 능력에 의한 구분 외에 다양한 범주를 수준별 차이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김재춘(2001, p. 26)은 교육적 이상인 개별화 수업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준별 수업이 등장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획일식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몇 개 집단으로 나누어 그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수준별 수업이 개별화 수업과 일제식 수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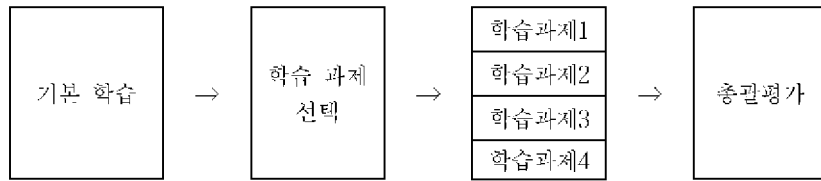
이화진(2001)의 연구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라고 보았다. 수준별 수업이란 학생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의 제 국면에서 그 처치 방법을 달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수준별 수업은 새로운 수업 방법이 아니며, 능력별 이동 수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단계형,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의 운영만은 아니라고 한다. 기본 과정을 마친 후 흥미와 관심, 능력에 따라 심화 또는 보충 과정을 선택하는 경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찾도록 하는 방법을 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준별 수업이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살펴본 결과, 수준별 수업이라고 할 때 능력에 의한 구분과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자료집(2003)에서는, 학생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 능력에 의한 차별화 운영안과 학습 과제에 따른 차별화 운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능력에 의한 차별화 운영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화 운영안(2003,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집, p.13 인용)

다음으로, 학습 과제에 따른 차별화 운영안에서는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과제를 선택한 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학습 과제에 따른 차별화 운영안(2003,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집, p.14 인용)

이와 같이 수준별 수업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집결될 때, 사회과 수업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사회과에서의 수준별 수업의 개념

수준별 수업이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업’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사회 교과에서는 어떤 의미로 파악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수업의 방향도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추구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이 뜻하는 바는 한편으로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와 요구를 존중하는 개별화 학습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의 선정이나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구성주의 교육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 중심이란 것이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하는 개별화 학습과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교육부, 2001, pp. 12~16).

사회과를 위한 수준별 교과서 구성 방안을 보면, 능력 중심의 심화 보충 형태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까지 고려하여 다시 개념화하고 있다(이혁규, 1999, p. 114). 그 결과 사회과의 수준별 수업은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결국, 사회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흥미에 따른 개별화 학습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Tomlinson(2003, p. 152)은 ‘흥미’란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이라고 하였다. 한 분야에서 자라나는 흥미는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 중심의 개별화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수준별 수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발행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과정과 학습자의 학습 속도를 감안한 보충 과정 및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 때 배

정된 시간의 80%를 기본 과정에, 약 20%를 보충 및 심화 과정에 할애한다. 심화 과정 학습자에게는 고차적 사고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특히 보충 과정은 별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본 과정의 중요 요소에 대한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한다(교육부, 1998, p. 102).

이영호(1998)의 연구에서는 수준별 교과서 개발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사회과적 특성을 감안하여 능력별 차이보다는 흥미나 적성에 따른 차이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객관적 지식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문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탐구 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 보충 과제, 심화 과제, 선택 과제 등을 제시하여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 평가에 있어서도 논술의 비중을 높이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의 고안이 요망되며, 탐구 과제 등에서도 평가 문제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들 속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그리하여 사회과에서는 기본 과정을 각 단원별로 제시한 후 보충 과정은 생략하고, 심화 과정을 단원별로 두기로 하였다. 이 때에도 사회과의 경우, 지식 수준이나 학습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능력에 따른 선별 뒤에 다른 학습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 수업은 능력별 분반이 아니라 학급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서도 능력별 수준 차이보다는 영역별 관심이나 흥미·적성에 따른 보충·심화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이영호 외, 1998).

이와 같이 원래 수준별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던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3가지 형태 중에서, 사회과에서는 교과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화 학습과 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으며, 11, 12학년 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인간 사회와 환경’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을 학습한 후, 2~4개의 다양한 심화 선택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심화 선택 과목의 개설은 학습자들의 지적, 정서적 측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01, p. 11).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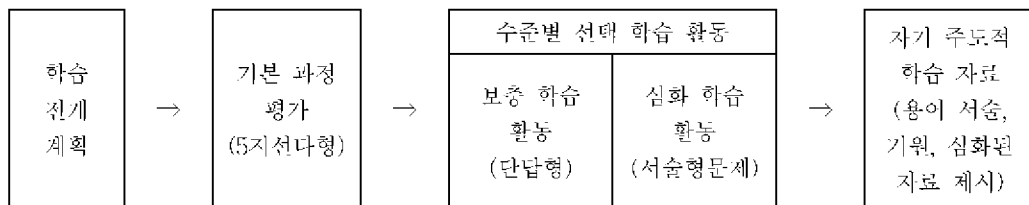
2경 교과서 체제인 사회 교과에서는 모듈별 활동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상위권 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 교사가 수업에 적합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충과정은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므로, 단원 정리 등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 3. 사회과 수준별 수업의 실제적 의미

사회과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능력 요인 외에 흥미 요인까지 고려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업 진행을 위한 실제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중 3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보충 활동은 기본 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 학습지를 통해 학생에게 어떤 결손이 있는지 파악하여 그 결손을 보충·설명하고 반복하여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진단 평가에서 70% 이상 성취를 보인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활동을 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 배포된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 자료(2002)를 살펴보면, 중단원(예 :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마다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학습 전개 계획을 제시하고, 다음은 기본 과정 평가 문제가 제시된다. 이 문제들은 5지 선다형 형태이다. 다음으로 수준별 선택 학습 활동이 제시되는데 보충 학습 활동을 위한 단답형의 문제가 있고 심화 학습 활동을 위한 지문을 실은 자료와 서술형 과제가 제시된다. 그 다음은 자기 주도적 학습 자료로서 각 단어나 개념, 용어의 상세한 어원, 의미, 관련 역사, 주요 용어 해설 등이 제시된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사회과 교수 학습 자료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수업 진행 과정

사회과 교과적 특성으로 볼 때, 수준별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능력별·흥미별 차별화된 수업을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학습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강조점은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임을 알 수 있다. 흥미와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을 의도하는 사회 교과서와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을 의미하는 교수 학습 자료를 참고로 하여 수업을 실제 진행해 나갈 때,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의 관건은 현장의 사회과 교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구정화(2004)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도없이 떠나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라고 표현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해법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실천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사회과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실행을 위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사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업 진행 실태를 살펴보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기 용이한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분석은 중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1부 중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단위들도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일부 단위 분석만으로 수업 진행 실태 및 수준별 수업 적용 가능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사회 교과서들 중에서 본 연구자는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본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다 채택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구자가 직접 수업에서 다룬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실제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가능성 여부를 생동감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수준별 수업 진행과 예로 사항을 위한 실천지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중학교 사회 3학년(금성출판사) I, II 단원과 고등학교 사회 1학년(두산) VII, VIII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과에서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사회과 교사 5명이 참여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이나 비구조화된 면접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조화된 면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형태를 띠며, 대화나 논의 형태로 진행된다. 연구자는 질문에 대한 구조화된 목록 없이, 다루려는 일정한 범위의 주제나 화제만 가지고 상호 작용을 진행한다. 이들과의 상호 작용 자체가 바로 자료의 출처가 된다(Mason, 1996, p. 70). 그리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얻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의 실행 여부나 그 문제점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반구조화된 면접에 9명의 중학생들과 8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사회 성적을 상·중·하로 구분한 뒤 그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출하였다. 또한 성적별로 구분한 이유는 자신의 성적에 따라 능력별 수준별 수업을 다르게 해석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준별 수업은 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 불리해진다고 인식하기 쉬운 수업 형태이므로 이들 성적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은 수준별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수준별 수업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력별 수준별 수업과 흥미·적성에 따른 수준별 수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질문하였다. 서울 시내에서 일정 연수를 받는 중학교 교사 18명과 고등학교 교사 16명으로 이루어진 사회과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실행 여부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3년부터 21년까지 다양한 교육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공립과 사립학교에 흩어져서 사회를 가르친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 130명과 인문 고교 학생 113명의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중·고등학교의 1, 2학년들이 설문에 응했으며, 고교 1학년들은 영어, 수학 과목에서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경험한 바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수준별 수업의 경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사회 성적별로 상·중·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모든 학생들의 사회 성적의 등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뒤 3등분하여 상·중·하위 성적으로 구분하였다. 수준별 수업의 본질적 의미가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 2. 자료 수집과 절차

사회 교과서 분석을 위하여, 2004년 10월 초, 해당 단원을 사회과 교사가 실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사회과 교사 5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과 수업 진행 실태 및 수준별 수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2004년 10월 초, 중·고교 사회과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수준별 수업의 실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수준별 수업 실행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말과 2005년 1월 초에 서울에서 사회과 일정 연수를 받고 있던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초, 상·중·하 수준별로 구성된 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중순에 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중순, 상·중·하 수준별로 구성된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전반적 인식을 추론해보기 위해 13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5종류이다. 먼저, 사회 교과서의 해당 단원에 대하여 교사들의 수업 진행 실태에 대한 면접 자료가 있다. 사회과 교사 5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업의 진행 실태 및 수준별 수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단위마다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둘째, 사회과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수준별 수업의 실행 여부를 살펴본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대화형으로 기술하여 수준별 수업의 실행 여부를 좀 더 생동감 있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때 나타난 사회과 교사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개념 인식 차이를 근거로 하여,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할 때는 능력별 수업과 흥미별 수업으로 유형화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수준별 수업의 실행 여부나 문제점 분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과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사회과 교사 대다수가 희망하는 개선 방안도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들 1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 자료가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상·중·하 수준별로 구분한 뒤, 대화형으로 기술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나타내고자 하였다.

다섯째, 대다수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다. 수준별 수업을 능력별 수업과 흥미별 수업이라는 2가지 의미로 유형화하여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 IV. 사회 교과서와 수준별 수업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 분석

수준별 수업의 시행 관건이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볼 때, 가장 주요한 지원 체제가 바로 ‘사회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준별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 교과서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수준별 수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단원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보자.

먼저, 중학교 3학년 사회(금성출판사) 교과서의 I. II 단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도입된 심화 활동 영역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각각의 중단원 말미에 심화 활동 과제가 제시된다. 이 과제는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은 심화 활동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 과제를 학습 진행시 보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등 깊이 있게 다루

지 않고 있다. 활동 과제 내용에 따라 조사 발표 과제로 부과하기도 한다. 이 때 성적별, 흥미별로 고려하기보다 발표 순서에 따라 조별, 개인별로 부과한다. 그리하여 실제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심화 활동 내용이 상위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선별적으로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이 쉬우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제시되기 쉽다. 또한 내용이 어렵거나 교과외의 기본 과정과 관련성이 적을 경우, 생략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준별 상위 집단이 교실 내에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구성되었다하더라도 이들 집단에게 별도로 학습 과제를 부여할 경우, 수행 평가로 반영될 때 진지한 학습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들 집단의 활동만 평가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 문제로 귀착되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심화 활동 과제가 전체적으로 채택되거나 생략되거나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과 교사는 기본적으로 심화 활동 영역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을 수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활동 영역이라고 판단되면 배제해 버린다. 그 결과 심화 활동을 수준별로 상위 학생들에게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참작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심화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두에게 동일한 심화 활동 자료를 제시한다. 이 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5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등 선택형 문제를 제시하고, 상위 학생에게는 서술형, 논술형, 조사 발표 과제를 제시하면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려면 중·하위권을 위한 문제를 교사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1〉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심화 활동 영역 분석

대단원	중단원	심화활동	수업 진행 실태 및 수준별 수업 적용가능성
I.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 민주적인 정치 발전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프랑스 혁명 전후의 사회 모습을 대비한 자료가 제시된다. 민주 정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갔다고 하면서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 조별 조사 발표를 시킨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참고로 읽어보게 할 수 있다. ☞ 서술형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상위 학생에게 적합한 활동이지만 부과하지 않는다.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 정부 기관과 국민의 바람직한 관계	☞ 각 정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한 권리를 기입하는 활동인데, 상위 학생들도 개념 정리를 잘 하지 못해 교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내용을 굳이 외우기보다 각 정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 정도를 강조한다. ☞ 시험 문제 내기 쉬운 형태이므로 같이 정답을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II.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3.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li> </ul>	<p>☞ 시민의 정치 참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시민 참여 방법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로 이용한다.</p> <p>☞ 발표 주제로 부과하여 조사해 오게 한다.</p>
	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맑은 물과 공기는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니다.</li> </ul>	<p>☞ 물과 공기를 사서 마시게 된 시대 변화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들 보게 한다. ☞ 경제 개념을 설명할 때 사례로 이용한다. ☞ 조사 발표 주제로 부과한다.</p>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 사회에서의 인기 상품 기상도</li> </ul>	<p>☞ 미래에서 인기를 끌 상품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에게 제시하여 읽게 한다. ☞ 미래 사회에 인기 있는 상품, 직업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p>
	3.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li> </ul>	<p>☞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활동은 심화 학습으로 적절하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법인세율, 재정 확대 등은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생략한다.</p>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사회(두산) 교과서의 VII. VIII단원을 살펴보자. <표 2>를 보면, 심화 활동을 위한 과제로 탐구 활동, 보충, 심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이 제시된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심화 활동 자료로 인식되기보다는 많은 탐구 활동 중의 일부로 인식되기 쉽다. 그 결과 사회 수업 시간 실제 해 볼 수 있는 심화 활동 과제는 사회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선별 작업은 수업 진도, 학생들의 의욕 상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차별화된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심화 활동 영역 분석

대단원	중단원	심화활동 과제	수업 진행 실태 및 수준별 수업 적용가능성
VII 정치 생활과 국가	1. 현대 정치의 과제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구활동</li> <li>보충</li> <li>심화활동 - 의약 분업 문제</li> </ul>	<p>◇ 보충의 경우, 부진 학생들의 수준을 보충시켜주려는 의도보다 기본 과정 내용의 보충 자료 성격이 지닌다.</p> <p>☞ 의약 분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구비가 요구된다.</p> <p>☞ 또한 시대적 유행이 다소 지난 문제로 보여 흥미가 감소됨. 상위권 학생들에게 역할별 자료를 조사하게 한 후 토론하게 하고, 하위권 학생에게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3. 민주 정치의 발전과 시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구활동</li> <li>보충</li> <li>심화활동 -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li> </ul>	<p>☞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신문이나 각종 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실제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자료 탐색이 가능하도록 조별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교실 환경 미비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거나 과제로 부과될 수 있다.</p>

VIII.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활동</li> <li>◆ 보충</li> <li>☛ 심화활동 - 아시아 경제 지도 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작업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답안 예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li> <li>☞ 수준별로 활동하기보다는 조별 활동을 통해 경제 지도를 만들어 발표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지표를 찾는 과정이 어렵다.</li> </ul>
	2. 현대의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활동</li> <li>◆ 보충</li> <li>☛ 심화활동 - 경제 위기가 불러온 사회 불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의 영향에 대한 기사 쓰기를 위해 자료 수집도 요구된다. 수업 시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료 탐색이 가능해야 한다.</li> </ul>
	3. 세계 경제의 경쟁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활동</li> <li>◆ 보충</li> <li>☛ 심화활동 -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li> <li>◆ 단원 마무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상품을 개발하려는 사업 계획서 쓰기 작업은 모든 학생들이 해 볼 수 있다. 상위 학생들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li> <li>☞ 각자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시하게 하고, 실제 과제는 수준별로 차이가 나므로 이 결과를 수행 평가에 활용한다.</li> </ul>

사회 교과서 내용 구성 세미나(1998)에서는, 사회과 영역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인 심화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교과서 분량이 늘어날 것이며, 종래의 지식 중심 내용이 그대로 삽입되며,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탐구 활동을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심화 활동 외에 사회 교과서에는 탐구 활동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탐구 문제 풀이를 통해 학생 전체에게 심화된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위 집단에게 심화 활동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탐구 활동과 유사한 심화 활동이 되거나, 심화 활동 영역에 꼭 다루지 않아도 무방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수업 시간에 생략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의 의도적인 계획과 노력 없이는 상위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심화 활동을 적용한 수준별 차별화 수업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교과서의 체제하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사회과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 V. 사회과에서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 1. 사회과 교사의 인식

실제 수준별 수업이 사회 수업에서 시행되고 있는가를 알려면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 사항의 성공적인 실현은 현장 교사의 실천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 정책적 요구 사항인 ‘수준별 수업’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박윤경(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01년에 사회 수업을 참여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씌어졌는데, 교육적 이상과 수업의 실제 사이에서는 매우 큰 간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과 교사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근원적으로 반대하여 수업 진도에 맞추어 같은 내용을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사회과 교사 자신이 사회 수업에서 구태여 수준별로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2004년 오늘날의 사회 수업 현장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인 수준별 수업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지금의 수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 수업에서 실시 여부와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교사 2인, 고등학교 교사 3인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 최○○ 선생님(일사 전공, 교육 경력 4년, 고등학교 교사)**

저는 수준별 수업 안 해요. 왜냐하면 굳이 사회과 수업 자체에서 수준별 수업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책을 봐도 지식을 얻는다고보다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태도,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수준별로 할 필요가 구태여 없지요.

평가 방식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필 평가에서는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심화 과정 내용이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지요. 내용을 선택하는 심화 과정이라고 하여 수준별로 다르게 하라는 내용 구별이 되지도 않고, 수준별로 다르게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심화 과정이 있어도 수업에서 따로 가르치기보다는 진도나 순서에 따라 필요하면 한꺼번에 해요. 특별히 심화 과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과거에 많이 해 왔던 활동이나 그런 것과 비슷해서 옛날 수업과 별 차이가 없어요.

최 교사의 경우 수준별 수업이 사회과에서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로 심화 활동이 심화하여 가르쳐야 할 정도로 내용 지식 면에서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최 교사는 수준별 수업을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과 교사들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수준별 수업을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흥미를 반영한 차별화된 수업이라는 광의의 의미로는 해석하지 않고 있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회과의 수준별 수업은 능력별 차이 외에도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책적 차원의 의미

와 사회과 교사가 인식하는 의미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수준별 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평가 문제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수업을 다르게 해 놓고 어떻게 문제를 같이 낼 수 있느냐’라는 객관성 시비를 들고 있다. 동일한 교사 내에서 평가 문제가 같을 경우, 수업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사회 교과서 내용상으로 볼 때 진정한 수준별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심화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모든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태여 잘하는 학생에게 이 과정을 별도로 제시하기보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이며 공평하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국가 정책 수준의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중학교 사회 교사의 경우이다.

**사회과 김○○ 선생님(지리 전공, 교육 경력 18년, 중학교 교사)**

저는 수준별 수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또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애들 수준에 맞추어 하고 있어요. 못하는 애들은 단어를 좀 몰라서 내가 설명하는 거 못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잘 하는 애들은 알아들겠죠. 잘하는 어떤 애들은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쉽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주위에서 수준별 수업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껴서 뭐 방법도 모르겠어요.

김 교사는 수준별 수업이라는 활동에 대해 무관심했다. 왜 그런 수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막연하게 자신의 수업은 중간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심리적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구호적으로 강조되어온 수준별 수업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무심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준별 수업이 실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로 수업 통제와 관련시켜 말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과 이○○ 선생님(일사 전공, 교육 경력 10년, 중학교 교사)**

이교사 - 수준별 수업이요? 해 본적 없지요. 교육과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위에 사회과 교사 중에서도 하는 것 본 적 없어요. 사회 교과서요 수준별로 안 되어 있어요.

면담자 - 해당 단원 말미에 심화 과정이 들어 있잖아요?

이교사 - 아아 그거요. 그냥 하지요. 필요 없을 때는 빼 버리고.

면담자 - 다른 교과에서는 하는 것 봤어요?

이교사 - 영어 수업에서 하는 거 봤어요. 한 교실 안에서 문단을 나누어 가지고, 자료를 수준별로 다르게 해서 나누어 준대요. 그런데 미치지요. 이쪽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난리 나고, 저쪽 보면 이쪽이 난리 나고, 교사도 자료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한 교실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해요? 그러니 안 하죠. 책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애들도 다

같이 앉아 있는데, 또 영어, 수학처럼 이동한다고 해 봐요. 시간표 짜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불가능하지요.

**사회과 한○○ 선생님(일반사회 전공, 교육 경력 8개월, 고등학교 교사)**

실제로 수업 시간 수준별로 모둠을 만들면 학생들이 반발하거나 실망할 수 있으니까 무작위로 조를 짠 다음 해당 모둠의 수준을 교사가 파악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수준별 수업을 못해요. 강의로 안하면 사회 내용 전달이 안 되는데 분단을 나누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수업하면 다른 쪽 애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수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로 하다보면 못하는 애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애들은 주워 못 알아 들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포기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사는 능력에 따라 수준별로 이동하여 그 수준에 맞게 수업하는 것을 수준별 수업이라고 보았다. 이 교사, 한 교사 모두 한 교실 안에서 수준을 달리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수업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수업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사회 교과서가 수준별로 되어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 교과서의 특징인 심화 활동을 수준별 심화로 보지 않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진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과 강○○ 선생님(일사 전공, 교육 경력 15년, 고등학교 교사)**

저는 심화 과정이 있는 사회 1학년은 해 본 적이 없어요. 경제나 사회 문화는 선택 과정이어서 수준별 내용이 없고 한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반으로 나누어 주니까 하는 건 봤지요. 그러나 사회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지요. 꼭 나눈다면 반 정도 나눌 수는 있지만. 하여튼 진도 나가면서 함께 해요. 그리고 심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도 나가면서 하면 되지요. 꼭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요.

강 교사 또한 수준별 수업이란 능력별 이동 수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굳이 사회과 수업에서 수준별로 이동하거나 나누어서 수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수준별로 한다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 교사들은 고교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사회과 심화 학습 교과목을 수준별 학습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는 수업 형태도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었다. 심화 활동이 수준별 상위 학생들을 위한 학습 영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사들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회과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능력에 따라 상·중·하 정도로 직절하게 나누어 학생 수준에 맞추어 사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심화·보충형, 단계형, 과목 선택형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과에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보충 과정은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심화 활동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사회과에서 적용하고 있다.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일반 선택 1과목과 심화 선택 9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심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선택형을 수준별로 해석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채택되는 경로를 보면서 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학생의 소속이 인문·사회 과정인가, 자연 과정인가에 따라, 교사 수급(주은옥, 2004, p. 181)과 수능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성적이나 내신 성적의 획득 가능성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정하므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선택 중심이 왜곡되어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선택 중심 교과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해 보았을 때, 교사 수급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흥미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90%).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실질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에 유리한 교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선택권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머지 1명의 교사는 괜찮다고 응답하였다(10%).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작 상의 계획된 의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박연하게 알고 있던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으며, 수업 진행에서도 나름대로 취사선택하여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교사들의 인식과 국가 정책 차원의 수준별 교육과정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에 응한 5명의 교사들의 생각을 좀 더 확대하여 더 많은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사회과 수준별 수업의 의미를 2가지로 분류하여 중·고교 사회과 교사 34명에게 제시한 뒤, 실시 경험 여부와 찬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제1안: 학생들의 상·중·하 능력에 따른 사회과 수업 실시

능력별 수업	의견구분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계	합계(명)
사회과 수준별 수업 실시 경험	있음	0	3	3 (8.8%)	34
	없음	18	13	31 (91.2%)	



일반적으로 사회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준별 수업이란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분류한 뒤 집단에 따라 수업을 다르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업 양태에 대하여 설문에 응한 교사들 중에서 실시해 본 경험은 8.8%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1.2%의 교사들은 실시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수준별 수업의 실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능력별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찬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4〉 사회과 교사의 능력별 수업 실시 경험에 따른 수준별 수업 찬반 여부

능력별 수업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합계
능력별 수업 경험 있는 교사	수준별 수업 찬성	0	수준별 수업 찬성	0	0(0.0%)
	수준별 수업 반대	0	수준별 수업 반대	3	3(100.0%)
능력별 수업 경험 없는 교사	수준별 수업 찬성	2	수준별 수업 찬성	2	4(12.9%)
	수준별 수업 반대	16	수준별 수업 반대	11	27(87.1%)
계	18명		16명		34명

사회과에서 능력별 수준별 수업에 대한 유경험자는 적었다(3명(8.8%)). 그런데 실시해 본 교사들이 도리어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 본 후 적절하지 않은 수업 형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수업 경험이 없는 교사들도 대다수(87.1%)가 반대하고 있으나 4명(12.9%) 정도는 찬성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수준별 수업을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수업 형태로 제시하여 고찰하였는데,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해 본 경우는 23.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업 경험이 없는 경우는 76.5%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 결과는 능력별 수업 형태보다는 더 실시 경험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에 교사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표 5〉 제2안 :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 적성을 고려한 사회과 수업 실시

흥미별 수업	의견구분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계	합계(명)
사회과 수준별 수업 실시 경험	있음	3	5	8 (23.5%)	34
	없음	15	11	26 (76.5%)	

다음은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수업을 실시해 본 경험에 따라 수준별 수업의 찬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6〉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수업 실시 경험에 따른 수준별 수업 찬반 여부

흥미별 수업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합계
흥미별 수업의 경험이 있는 교사	수준별 수업 찬성	1	수준별 수업 찬성	4	5 (62.5%)
	수준별 수업 반대	2	수준별 수업 반대	1	3 (37.5%)
흥미별 수업의 경험이 없는 교사	수준별 수업 찬성	8	수준별 수업 찬성	8	16 (61.5%)
	수준별 수업 반대	7	수준별 수업 반대	3	10 (38.5%)
계	18명		16명		34명

흥미를 반영한 수업을 실시해 본 사회과 교사들은 절반 이상(62.5%)이 수준별 수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수업을 해 보지 않은 교사들도 절반 이상(61.5%) 수준별 수업을 찬성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사회과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에 있어서, 능력별 수업 형태보다는 흥미를 고려한 수업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에 응한 사회과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거의 많이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원인에는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 교과서가 수준별 수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수업 환경 측면에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요인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에 비해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 2. 사회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상·중·하위권 학생들의 인식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교사들이 수준별 수업을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듯이, 학생들도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흥미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이라는 의미를 이해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이라는 전제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경우, 자신의 학업 능력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학생의 성적도 함께 제시하였다.

### 상위 학생1 면접 (인문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상·중·하로 나누어 수준별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요. 불가능하지요. 지금 상황에서서는 안돼요. 하려면 교육청 같은데서 하라고 딱 정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평준화에 어긋나니까 못하는 거죠.

면담자 - 수준별 수업은 하라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학생 - 그래요?(놀라운 표정으로)

면담자 - 학교 다니면서 수준별 수업 받아본 적 있어요? 전 과목 수업 중에서.

학생 - 저는 중, 고등학교 때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교실 안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려면 반을 이동해서 해야 되요. 한 교실에서 분단을 나눠서 하면 다른 애들

이 떠들어요. 그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리고 ‘저 애들은 잘 하는 애들’이라고 딱 적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죠. 조별로 섞어서 수업해도 마찬가지예요. 안하는 애들이 떠들어서 안돼요.

면답자 수준별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싶어요?

학생 사실 교실을 이동해서 수준별로 하면 좋지요. 왜냐면 애들이 안 떠드니까 집중이 돼요. 집중해서 1시간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고 지금처럼 못하는 애들, 떠드는 애들 다 모여 있으니 2~3시간 해도 집중한 것 1시간만 못해요. 하지만 사회 과목에서도 이것처럼 상, 중, 하로 나누어 교실 이동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옛날처럼 아예 평준화를 포기하는 게 국가로 봐서 나올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상위 학생과 면접을 해 보면 수준별 수업을 통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능력에 의한 구분, 학생들의 흥미에 의한 구분이 있는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학습 분위기 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 능력과 학생 흥미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은 예전에도,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 상위 학생2 면접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준별 수업이요? 수학 시간 때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 안 좋아요. 못하는 열반 애들이 무지 싫어해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 모아 놓은 반도 요즘은 떠드는 애들이 많아서 그다지 분위기가 좋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려는 애들이 많으니 낫기는 좀 낫겠죠. 문제나 수준도 더 높게 가르치기가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학원이 아니고 학교인데 수준별로 나누어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봐요. 그냥 같이 모아놓고 하는 게 낫죠.

면답자 떠드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에 의한 수업 방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 수업 방해요. 그거 제가 더 하는데요.

학생들 대다수는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 상위 학생3, 4 면접 (중학교 1학년)

학생3 - 학교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못하는 애들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별로 따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능력별로 하면 못하는 애들도 자기 수준에 맞춰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실력 향상이 되고, 잘하는 애들도 더 배울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과목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4 - 저는 수준별 수업 찬성하는데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같이 하다보면 못하는 사람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방해를 받게 되요. 또 상 반은 더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으니 좋죠. 그렇지만 못하는 반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애들은 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위 학생의 솔직한 심정이 들어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과 수준이 다른 학생들 때문에 수

업 시간 지체하게 되는 경험을 하다보니 능력별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 게다가 못하는 반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하니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등학생들에 비해 이들 중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의 본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상위 학생5 면접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하는 과목은 없어요. 사회요? 사회과목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죠.

**상위 학생6 면접 (중학교 1학년)**

수준별 수업이라고 해서 반을 나눈다 해도 어차피 같은 시험을 보니까 배우는 것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또 상 반에 들어간 아이들이 하 반에 들어간 아이를 놀려서 친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사회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사회 교과에서는 내용의 위계상 능력별 수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같은 내용을 배울 것이므로 큰 차이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성적에 의한 반 편성으로 인해 친구 사이가 어색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상위집단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겠는가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서부터 사회 교과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 하위 집단을 고려하는 의견, 상위집단의 능력에 맞는 차별화된 수업을 기대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상위집단의 개략적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213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나중에 제시할 것이다.

다음은 중위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의견들이다.

**중위 학생1 면접 (고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이요. 안 해도 되요. 지금처럼 하면 되지요. 만약 나누어 이동해서 하면 잘하는 우반은 좋겠죠. 하지만 못하는 열반은 분위기 안 좋겠죠.

**중위 학생2 면접 (고등학교 3학년)**

사회 시간 성적에 따라 나누어 수업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상태에 따라 배우면 좋죠. 못하는 애들도 자기 현실을 직시하게 되겠죠. 물론 못하는 애들은 나눈다는 자체를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성적에 따라 배우는 게 낫죠. 정 성적 때문에 그렇다면 선택하게 하면 좋죠. 30시 안 나게. 참 애들이 성적을 다 아니까 30가 나겠네요.

이 학생의 논리대로라면 실제로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자신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환경 때문에 이 원리가 잘 실현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곳이 경쟁과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는 학원과는 차별화된 것을 기대한다. 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인간다운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곳이며, 잘 하는 학생들이 인내하며 이들과 어울리며, 도와주는 모습을 권장하고 있다.

#### 중위 학생3 면접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별 수업을 사회 시간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회는 안기 과목이잖아요. 수학처럼 기초가 필요한 과목도 아니잖아요. 사회 시간 그냥 자기가 집중만 좀 더 하면 듣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고1 학생들은 영어, 수학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동 수업의 현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사회라는 교과에서는 이동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의 집중 정도에 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중위 학생4 면접 (중학교 1학년)

인풋 생각해보면 못하는 애들이 모욕같은 거 받을 거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보니 능력 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애들도 모욕을 받다보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

#### 중위 학생5 면접 (중학교 2학년)

수준별 수업에 반대해요. 공부를 잘 하는 아이와 잘 못하는 아이가 함께 수업을 해서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 학생의 경우, 수준이 혼합된 반에서 다양한 근접 발달 영역의 개발을 통해 상호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그러한 효과가 교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준별로 나눈다면 하위집단의 개발 효과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중위 집단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업 분위기 면에서 하위 집단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는 의견, 하위 집단의 수업에서는 근접 발달 영역의 개발이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 사회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필요 없다는 의견,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수준별로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중위 집단의 개략적인 분포는 나중에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상·중위 수준의 학생들과 면접을 통해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하위 집단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면 수준별 수업 적용에서 가장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하위 수준 학생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하위 학생1 면접 (고등학교 3학년)**

사회 시간 수준별로 모여서 하는 거요 별로 안 좋아요. 참피하잖아요. 그리고 모아 놓으면 떠들잖아요. 수업 분위기도 더 안 좋고, 그냥 지금처럼 같이 하는 게 좋죠. 제가 듣지 않아서 그런거지. 못 알아듣고 그런 건 아니예요.

**하위 학생2, 3, 4 면접 (중학교 1학년)**

학생2 - 수준별로 하는 것 반대예요. 애들이 놀릴까봐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요.

학생3 -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재들 못하는 애들이야.' 하고 말할 텐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전 학교 안 다녀요.

학생4 - 수준별로 하는 것 안 했음 좋겠어요. 잘 하고 싶은데 낮은 반에 있으면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따라가려면 같은 반에 있어야지요.

**하위 학생5, 6 면접 (고등학교 1학년)**

학생5 - 수준별 수업이요. 그거 안 좋아요. 교실 이동하는데 책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못하는 애들 모아놓으니깐 수업 분위기도 안 좋고 다 안 하는 애들이니까 공부도 더 안 하게 되요.

면담자 설명 수준은 어떻게?

학생5 원리나 기초를 설명해 주니까 그건 도움이 좀 되죠. 그래도 그거보다 위화감 느끼는 게 더 안 좋아요. 게다가 책상 없어져서 고생하는 거도 불편해요.

학생6 사회 과목은요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수업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예요. 자기가 암기를 좀 더 하면 되요. 나누어 할 필요 없어요. 한 교실에서 수준에 따라 나누는 것도 그래요. 애들이 안 좋아하죠. 괜히 차별하는 거 같고 안 좋죠. 지금 수업도 알아들을 만 해요.

하위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준별 차별화 수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 교과에서 수준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여기며, 자신이 노력하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단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내용을 모를 뿐이며, 암기를 더 하거나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영어나 수학 과목의 이동 수업을 통해 겪은 경험으로 인해 더 분명하게 각인되고 있었다.

또한 하위 학생들은 수준별로 차별화된 수업이 인간적이지 못한 수업 방법이라고 여긴다. 위화감, 사람 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준별 수업의 폐단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낮은 학업 능력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으로 하위 학생들을 모아 놓으면 수업 분위기가 안 좋아서 더 수업하기 힘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수준별 이동 수업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하위집단의 개략적인 의견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면접에 참여한 17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특히 하위 집단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수업 분위기의 훼손을 많이 염려하고 있었다. 사회과 교사들이 수업 환경 요인으로 인해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

한 것에 비해, 학생들은 동료 간 관계 측면에서 사이가 나빠질 것과 하위 집단의 소외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243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면접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능력에 의한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준별 수업을 능력에 의한 차별화된 수업과 흥미와 관심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해 준 뒤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들 4학급을 상·중·하위 성적의 집단으로 분류한 뒤,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들 집단들의 찬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중학교 상·중·하위 집단 학생들의 사회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분석

사회과 수준별 수업	의견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계
1안 : 능력별 수업에 대한 학생 평가	찬성	19(44.2%)	7(15.9%)	10(23.3%)	36 (27.7%)
	반대	24(55.8%)	37(84.1%)	33(76.7%)	114(72.3%)
2안 : 흥미·적성별 수업에 대한 학생 평가	찬성	25(58.1%)	28(63.6%)	30(69.8%)	83 (63.8%)
	반대	18(41.9%)	16(36.4%)	11(25.6%)	45 (34.6%)
	기타	0	0	2(4.6%)	2 (1.5%)
계(명)		43	44	43	130

중학생들은 중·하위 집단(15.9%, 23.3%)보다 상위집단 학생들(44.2%)이 능력별 차별화된 수업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흥미·적성별 수업에 있어서는 상·중·하위 집단 학생들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었다(63.8%).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는 이들 중학교 상위집단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능력별 수업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업이므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고등학생들을 통합하여 분석하지 않고 분리한 배경은, 면접 과정에서 상위집단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차별화된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중학생에게서 나타난 경향이 고등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4학급을 상·중·하위 성적의 집단으로 분류한 뒤,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들 집단들의 찬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고등학교 상·중·하위 집단 학생들의 사회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분석

사회과 수준별 수업	의견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계
1안 : 능력별 수업에 대한 학생 평가	찬성	9(27.3%)	6(14.6%)	10(25.6%)	25 (22.1%)
	반대	23(69.7%)	33(80.5%)	26(66.7%)	82 (72.6%)
	기타	1(3.0%)	2(4.9%)	3(7.7%)	6 (5.3%)
2안 : 흥미·적성별 수업에 대한 학생 평가	찬성	25(75.8%)	31(75.6%)	25(64.1%)	81 (71.7%)
	반대	7(21.2%)	9(22.0%)	11(28.2%)	27 (23.9%)
	기타	1(3.0%)	1(2.4%)	3(7.7%)	5 (4.4%)
계(명)		33	41	39	113

고등학생들은 상·중·하위 집단 모두 능력별 수준별 수업보다는 흥미·적성별 수업을 더 찬성하고 있었다(71.7%). 능력별 수업에서도 찬성 경향(22.1%)보다는 반대 경향을 더 강하게 보였다(72.6%).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상·하위 집단(27.3%, 25.6%)이 중위 집단(14.6%)보다는 능력별 수업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상위 집단의 경우 능력별 수업 찬성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상위집단들은 고등학생들(27.3%)보다 중학생들(44.2%)이 능력별 수준별 수업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별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71.7%)보다 중학생들(63.8%)의 선호도가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상위집단에 비해 중·하위 집단의 경우,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의견이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국 설문에 응한 상위 집단의 경우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좀 더 능력별 수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떠드는 학생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수업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적을 받는 것이므로 자기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긴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게 되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학생들의 견해로 해석해 보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사회과의 능력별 수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2.3%, 72.6%). 이에 비하여 사회과에서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수업에 대하여는 대다수 학생들이 찬성하고 있다(63.8%, 71.7%).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과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는 데 유의미한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Ⅵ. 사회과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 사회과에서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

수업 현장에 있는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교과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준별 수업의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사회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업의 상호 작용의 주체인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의 시행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회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으며, 하려고 해도 현행의 사회 교과서 구성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하위집단 학생들이 받게 될 심리적 상처를 많이 염려했으며,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 수준별 수업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실의 사회과 수업 현장에서는 거의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좀더 체계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과 교사 31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이 사회과에서 실시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표 9〉 사회과 수준별 수업 실시 어려움의 원인 분석

원 인	유 형	응답비율	합 계
사회과에서 수준별 수업이 안되는 원인	수준별 반 편성, 구분 곤란	8(25.8%)	31
	교실 내 현실적 어려움	4(12.9%)	
	교육 내용 선정, 자료 부족	4(12.9%)	
	사회과 교실 부족	3(9.7%)	
	하위 집단의 학습 분위기 저조	3(9.7%)	
	필요성을 못 느끼며 무의미함	3(9.7%)	
	학급 인원수 과다	2(6.5%)	
	평가의 다양화가 안됨	2(6.5%)	
	시간 부족, 진도 나가야 함	2(6.5%)	

위 표에 의하면 수준별 수업 실시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제시하는 원인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수준별 반 편성 자체의 어려움에서부터 학습 자료의 부족, 교실 현실 여건의 어려움, 사회과 교실 부족, 학생 인원수 과다, 진도 시간 부족, 무의미, 하위 집단의 학습 분위기 침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사회과 수준별 수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비해 대다수 학생들은 하위 집단이 받게 될 무력감과 마음의 상처, 어색한 교우 관계 등을 염려하고 있었다. 사회과

교사가 염려하는 원인과 학생들이 우려하는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사회과 교사들은 수업 체제적인 요소들을 주로 지적하는데 비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겪게 될 심리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와 교사 면접, 학생들의 견해, 교과서 분석 등을 종합하여 수준별 수업 미비의 원인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과 교사 자신이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준별 수업의 용어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주위에서 참고로 볼 수 있는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뿐이다. 사회 교과서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진정한 수준별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러한 활동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지, 교육적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지니고 있다.

사회과 교사의 입장과 더불어 학습의 주제인 학생들조차 상당수 수준별 수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사회 수업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위 집단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으로 인해 하위 집단을 위한 교육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상·중·하위 수준 학생들 모두 수준별 수업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수준별 수업이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상위 집단에게 차별적으로 심화 활동을 진행한 이후 이들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한 후 평가는 수준별로 다르게 할 것인가, 동일한 정도를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준별로 차별화된 주제를 다룬 후에 평가에 있어서 공정하게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본 후, 공정하게 같이 가르쳐주고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비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관은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 수준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학습자 각자의 진도와 성취도 변화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교육부, 1998, p. 104).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상응하게 평가 내용도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 현실에서는 차별화된 평가보다는 동질적 평가를 통한 객관적 비교를 기대하고 있어 실제 수준별 수업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대훈(2002)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 미국의 교육적 관행과 한국적 상황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차별화 수업 현상은 20세기에 걸쳐 학교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관행이라고 한다. 이민자들의 급증, 사회적 다원주의 현상, 생활 적응 교육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수준별 수업 관행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수준별 수업이 교육적 이치에 타당하므로 실시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을 실시하는 사회과 교사는 오늘날의 학교 현실에서 이러한 수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므로 도입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화진(2001)은 수준별 수업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날 부정적 효과로는 학생들 간 위화감 형성 및 학습 분위기 훼손(33.2%), 교사 수업 부담 가중(24.7%), 심화·보충형에 맞는 평가 방안 부재(22.6%), 부진 학생 소외, 지식 위주 교육 심화(14.2%)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 2. 수준별 수업 실시를 위한 개선 방안

사회과 수업의 현장에서 교사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려면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회 교과서 편제의 미비, 사회 교사의 인식 부족, 학생들의 반대 의견 등이 종합되어 구태여 사회 수업에서 이러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과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사회과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선결 조건은 정보화 시설이 갖추어진 사회과 교실의 구비였다. 그 다음으로 학습 자료 개발과 지도 방법의 개발, 능력별 접근보다 흥미에 따른 접근 모색, 하위 집단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10〉 사회과 수준별 수업 실시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개선방안	유 형	응답비율	합 계
사회과에서 수준별 수업 실시를 위한 개선 방안	사회과 교실, 정보화 환경 지원	4(25.0%)	16명
	자료 개발	2(12.5%)	
	지도 방법 연구 개발	2(12.5%)	
	흥미 적성별 수업 운영	2(12.5%)	
	하위 집단에 대한 수업 연구	2(12.5%)	
	교사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 확보	1(6.3%)	
	학생수 감소	1(6.3%)	
	교사의 강한 실천 의지	1(6.3%)	
	사회 참여 등 고차적 방법 도입	1(6.3%)	

그 외 개별적인 의견으로 교사 평가의 자율성 확보, 학생수 감소, 교사의 의지 등이 요망된다고 보았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이와 같이 수준별 수업의 현장 적용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제시하는 개선 방안 앞서 우선,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자유 경쟁 원리의 도입이 학원에서는 가능하지만 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인식으로 인해 학교의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 시장 경쟁의 원리를 반영한 수준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분위기에서는 학교 간 평준화 정책이 국민 정서에 더 부합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설문에 응한 상위 집단의 경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수준별 수업을 좀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좀 더 신세대인 이들은 능력별 수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서의 변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행 사회 교과서로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교과서 편제를 확실하게 수준별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 교과서에 수준별로 차별화된 형태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심화 활동이 탐구 활동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어 수준별 수업의 목표를 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흥미 있는 내용 중에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보조 참고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교과서보다는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교과서에 첨부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혁규(1999, p. 131)는 수준별 사회 교과서와 함께 '사회과 탐구'라는 책을 제작하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박순경(2004, p. 17)의 제안 지침에서는, 이동 수업이나 개별 학습자에 최적의 처방을 위하여 세부 수준별 별책 교과서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수준별 수업 후 평가는 수준별로 할 것인가, 동일한 정도를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2001)의 지침에 따르면, 단계형, 심화·보충형을 막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심화·보충 학습의 활동 과정을 과정 중심 평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화진 외, 2001, p. 46에서 재인용). 그러나 앞으로의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해 볼 때, 객관적 평가 방향을 지양하고 수준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동일한 평가를 통해 줄 세우기 식의 상대 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하위권 학생들도 자기의 수준에 맞는 평가, 이들의 발달과 진보 정도를 평가할 때 수준별 수업 실시와 평가 간의 연계성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 때 하위 학생들의 무력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구정화(2004). 초등학교 사회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토론 원고.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1998). **사회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2001).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 III**, 교육과정 자료 81.
-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자료**. 교육과정자료 198.
- 김왕근(2003).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교실 수업 이해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35(2).
- 김재춘(2001).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학사.
- 박순경 외(2004).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의 기초 탐색**.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연구 자료 ORM 2004-29.
- 박윤경(2003).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 손봉호 외 11명(2002). **고등학교 사회**. 두산출판사.
- 손봉호 외 11명(2002). **고등학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 두산출판사.
-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2002).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 이화진 외(2001).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2001-1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혁규(1999). 수준별 교과서 예시단원 현장 적용 연구. **시민교육연구**, 29.
- 조대훈(2002). 수준별 교육과정 담론의 분석. **시민교육연구**, 34(2).
- 조화룡 외 12명(2003). **중학교 사회 3**. 금성출판사.
- 조화룡 외 12명(2003). **중학교 사회 3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 주영숙·이영효 외 (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구성 방안: 사회편**. 세미나 자료집.
- 주은옥(2004). 사회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7(1).
- Tomlinson, C. A. (2001). *How to differentiate instruction in mixed-ability classroom*. ASCD. 황윤한 외 역(2003). **수준차가 다양한 교실에서의 효율적인 개별화 수업**. 도서출판 백의.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Sage Publications. 김두섭(역)(1999).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논문접수 : 2005년 4월 4일 / 수정본 접수 : 2005년 5월 17일 / 게재 승인 : 2005년 6월 2일

## ABSTRACT

### The study on the problems of differentiated curriculum in the Social Studies

Il-Nam Ok

(Teacher, Youngdeungpo High School)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differentiated curriculum in the Social Studies. For this purpose, I analyzed questionnaires on the views of differentiated curriculum, also interviewed five teachers and nine students, and analyzed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cognition of Social Studies' teachers wa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differentiated curriculum in the 7th curriculum ; second,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level-correspondent lessons with the existing Social Studies textbook ; thirdly, the majority of Social Studies' teachers didn't conduct level-correspondent lessons, and are not aware of the necessity of such lessons ; lastly,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didn't want level-correspondent lessons in the classroom activities of the Social Studies .

The reasons are as follows : First, level-correspondent lessons and level-correspondent evaluation are not connected directly ; second, there are not enough learning materials for level-correspondent lessons ; thirdly, the level- correspondent lessons are demanding troublesome instructing method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lesson management.

So, for applying of the level-correspondent lesson, the equipment of multi-media is suggested 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s.

Key Words : differentiated curriculum, level-correspondent lesson, the Social Studies, the 7th curriculum